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 악화

~ 개인소비 침체가 하락세 요인으로, 향후는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이 열쇠 ~

(조사대상 2만 7,104사, 유효회답 1만 1,410사, 회답율 42.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43.5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가 침체함과 더불어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 코스트 부담의 증가도 있어 2개월 연속 후퇴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호재와 악재 각각의 요인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인소비 정체 외에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의 영향으로 『농·임·수산』 『운수·창고』 를 제외한 8개 업계에서 악화되었다. 지역별로는 『츄고쿠』 를 제외한 9개 지역에서 악화되었다. 저조한 관광산업은 각 지역의 체감경기를 하락시킨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이 보합이었으나 「중소기업」 과 「소규모기업」 이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관광DI는 46.3으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감소하여 3개월 만의 악화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로부터는 3.6포인트 감소로 대폭 악화되었다. 기업으로부터는 인바운드는 호조이나 국내여행자의 소비가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다수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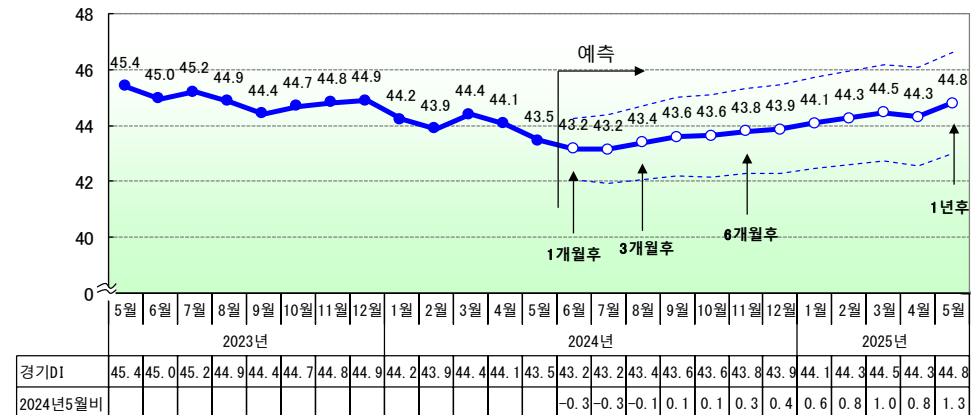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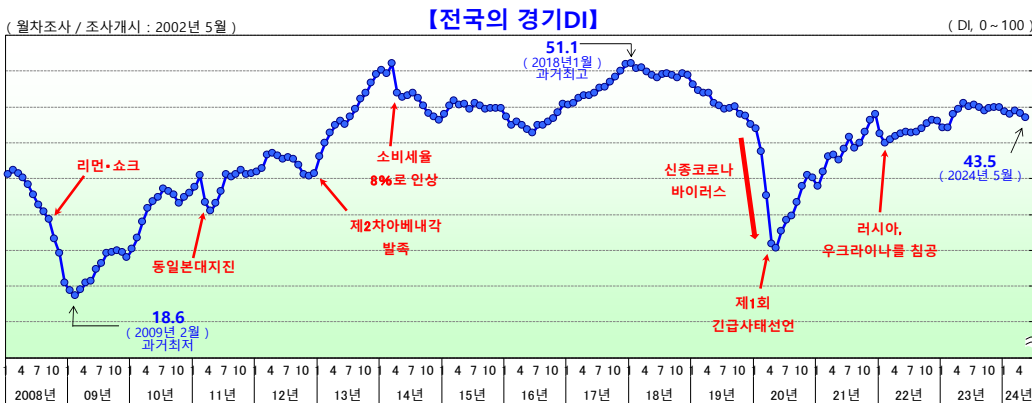
< 2024년 5월의 동향 : 2개월 연속 후퇴 >

2024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43.5로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가 침체함과 더불어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 코스트 부담의 증가도 있어 2개월 연속 후퇴하였다.

5월의 국내경기는 실질임금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소비DI가 대폭 악화되었고 거기다 국내여행을 포함한 관광산업이 저조하여 주요관광지를 품은 지역이 침체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인건비 급등과 더불어, 2024년 문제 대응에 따른 코스트 부담 증가,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도 하락세 요인이었다. 한편 자동차 생산재개 및 활발한 인바운드 소비는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분양맨션의 건설수요 및 반도체 관련 공장의 진출, 호텔관련 설비투자는 호재였다.

< 향후의 전망 : 보합경향으로 추이 >

향후는 임금인상 및 정액 감세 등 가계의 소득환경 개선으로 인한 개인소비 동향이 포인트가 되는 가운데, 실질임금 하락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이다. 자동차의 만회생산 및 인바운드 수요 증가, 실리콘 사이클의 회복 등도 호재로 보인다. 한편 해외경제의 하방리스크 외에 일본은행의 추가금리인상 및 인력부족, 전력 등 각종보조금의 종료, 폭넓은 자동차업체의 부정문제로 인한 영향도 주목된다. 향후의 경기는 호재와 악재 각각의 요인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 : 10개 업계 중 8개 업계에서 악화, 소비마인드 저하가 폭넓은 업종에 악재로**

· 개인소비 정체 외에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의 영향으로 10개 업계 중 8개 업계에서 악화되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주기회 손실 등은 악재로 작용하였다. 한편 『운수·창고』는 개선되었으나 기업규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 『서비스』(49.7) …전월대비 1.2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식재료 및 광열비 인상, 인건비 급등이 부담이 된 「음식점」(동 2.6포인트 감소)은 3개월 만에 40대로 하락하였다. 「오락서비스」(동 0.1포인트 감소)나 5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료칸·호텔」(동 5.3포인트 감소)은 모두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각 곳에서 소비마인드 저하를 느낀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편 신규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의료·복지·보건위생」(동 0.7포인트 증가)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서비스』는 15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악화, 1년 3개월 만에 40대로 침체하였다.

· 『소매』(40.7) …동 1.0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가전·정보기기소매」(동 3.5포인트 감소)는 물가고로 인한 구매보류가 판매수 감소에 직결하여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인건비 및 광열비 등의 상승과 더불어 대형슈퍼와의 가격경쟁도 영향을 미쳐 「음식료품소매」(동 1.5포인트 감소)도 2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외에 저조한 주택착공 등으로 인하여 「가구류소매」(동 4.6포인트 감소)는 2개월 만에 침체하였다. 한편 「의약품·일용잡화소매」(동 0.3포인트 증가)는 5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 『건설』(46.0) …동 0.6포인트 감소, 4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사업단가DI 및 고용과부족DI가 계속 높은 가운데 기업으로부터도 「원재료비의 급등으로 인하여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토공·콘크리트공사)이나, 「일 자체는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수주 기회를 놓치고 있다」(일반토목건축공사)와 같은 목소리가 다수 들려왔다. 게다가 각지에서 공공공사가 적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한편 반도체 관련 공장의 진출로 인한 각종공사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문의 증가, 호텔 관련 설비투자 등은 호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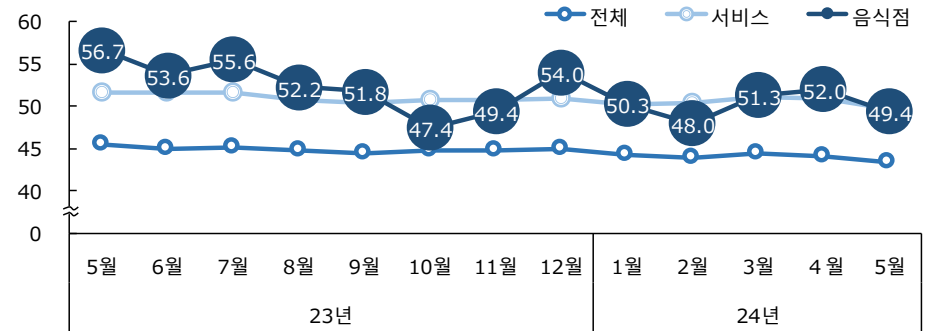
· 『제조』(39.2) …동 0.5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매출은 늘고 있으나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음식료품·사료제조」(동 1.5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음식료품 관련은 제조, 도매, 소매에 걸쳐 악화가 나타났다. 「출판·인쇄」(동 0.8포인트 감소)도 「서점의 폐점이 많고 신규개점은 적다고 느낀다. 출판사로부터 사입되는 신간의 부수도 감소」(출판업)라는 목소리도 있듯이 2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한편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의 견인 및 해외판매의 호조 등의 목소리도 들리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동 0.8포인트 증가)는 2개월 만에 회복하였다.

**업계별 경기DI**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44.8	46.7	42.5	43.0	42.1	43.0	40.1	40.5	40.3	41.2	42.4	42.0	43.7	1.7
금융	47.8	48.1	47.4	48.8	46.8	47.3	48.0	47.0	47.7	47.7	49.2	48.8	48.0	▲ 0.8
건설	46.9	46.8	47.8	47.4	47.1	47.5	47.8	47.2	47.7	47.5	47.0	46.6	46.0	▲ 0.6
부동산	50.7	50.3	48.8	49.6	48.5	48.7	47.9	47.5	48.1	48.3	49.3	49.3	47.7	▲ 1.6
제조	41.5	41.3	41.5	41.2	40.8	41.1	41.6	41.5	40.4	39.8	40.2	39.7	39.2	▲ 0.5
도매	43.7	42.5	42.9	42.3	41.9	41.7	42.1	42.7	41.6	40.9	41.4	41.0	40.5	▲ 0.5
소매	42.4	42.0	41.9	41.8	41.4	41.9	41.2	41.5	40.8	40.6	41.4	41.7	40.7	▲ 1.0
운수·창고	43.4	42.2	43.5	43.3	42.8	44.1	43.8	44.5	43.5	41.9	43.1	43.1	43.3	0.2
서비스	51.6	51.6	51.7	50.8	50.4	50.8	50.8	50.9	50.2	50.4	51.0	50.9	49.7	▲ 1.2
기타	41.2	39.8	40.9	40.8	39.2	40.1	38.2	42.8	41.3	41.2	41.1	42.1	37.8	▲ 4.3
격차	10.1	10.3	10.2	9.6	9.6	9.7	10.7	10.4	9.9	10.6	10.8	11.2	10.5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격차는 10개 업계 「기타」를 제외함

**주목업종의 경기 DI 추이**



**주요 업종별 경기 DI 랭킹**

상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하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료칸·호텔	55.1		출판·인쇄	33.3
정보서비스	54.5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34.7		
전문서비스	49.9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5.3		
리스·임대	49.7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36.0		
음식점	49.4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6.3		
인재파견·소개	48.6	지류·문구·서적도매	36.4		
금융	48.0	철강·비철·광업	36.5		
부동산	47.7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7.4		
메인テナンス·경비·검사	47.5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37.9		
오락서비스	46.2	전문상품소매	38.7		

**규모별 :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2개월 연속 악화, 2024년 문제가 표면화**

- 「대기업」은 보합, 「중소기업」「소규모기업」은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여행이 저조했던 가운데 2024년 문제에 관련된 우려가 소규모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엔저(円低)에 따른 자재가격 급등은 『건설』을 하락시킨 한편 중소기업의 주택 관련으로 과급하였다.
- 「대기업」(47.9) …전월 대비 보합. 『건설』은 「자재 급등으로 종합건설업자의 예산 내에 넣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등 5개월 만에 40대로 하락하였다. 한편 자동차 생산 재개 및 하주(荷主)의 업적이 호조인 『운수·창고』는 상향하였다.
- 「중소기업」(42.6) …동 0.8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서비스』는 저조한 국내여행의 영향으로 「료칸·호텔」「음식점」등이 크게 침체하였다. 또한 주택판매가 어려운 가운데 가구류소매 및 가전소매도 악화되었다.
- 「소규모기업」(41.2) …동 1.1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운수·창고』는 연료고와 함께 2024년 문제에 따른 「페리 사용으로 인한 코스트 증가」등도 있어 3.8포인트 대폭 악화되었다. 판매의 장기화로 재고가 증가한 『부동산』도 하락하였다.

규모별 경기DI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대기업	48.1	47.7	48.6	48.0	47.8	47.9	48.4	48.1	47.9	47.7	48.0	47.9	47.9	0.0
중소기업	44.9	44.5	44.6	44.3	43.8	44.1	44.2	44.3	43.6	43.2	43.8	43.4	42.6	▲ 0.8
(그중 소규모기업)	43.9	43.6	43.4	43.5	43.0	43.4	43.1	43.3	42.6	42.4	42.9	42.3	41.2	▲ 1.1
격차(대기업 - 중소기업)	3.2	3.2	4.0	3.7	4.0	3.8	4.2	3.8	4.3	4.5	4.2	4.5	5.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경기DI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3.0	43.9	45.6	44.8	43.6	43.7	43.3	43.3	41.6	41.8	42.4	42.8	42.4	▲ 0.4
토호쿠	41.6	41.7	42.1	41.8	41.5	41.4	41.3	40.3	40.2	38.8	39.3	39.2	38.6	▲ 0.6
키타칸토	43.4	42.8	43.1	43.1	42.9	43.0	42.6	43.0	40.9	41.7	42.0	41.4	40.9	▲ 0.5
미나미칸토	47.2	47.2	47.4	46.6	46.4	46.3	46.7	46.6	46.5	46.6	47.2	46.6	45.8	▲ 0.8
호쿠리쿠	44.0	43.7	43.6	43.1	42.5	42.1	42.3	42.5	40.0	39.8	41.4	42.4	42.3	▲ 0.1
토카이	44.6	43.8	44.4	44.4	43.6	44.4	45.1	44.8	44.4	43.1	43.7	43.2	43.0	▲ 0.2
킨키	45.4	43.9	43.8	43.6	43.2	43.7	44.1	44.6	43.6	43.2	43.6	43.7	42.6	▲ 1.1
츄고쿠	44.9	44.7	45.3	44.3	44.1	44.9	44.2	43.9	44.3	43.2	43.1	42.6	42.8	0.2
시코쿠	43.0	41.7	42.6	41.8	41.2	41.4	41.3	42.5	42.2	41.0	41.1	41.2	40.2	▲ 1.0
큐슈	48.5	48.2	48.0	48.3	47.7	48.6	48.7	49.0	48.3	48.1	48.5	47.6	46.4	▲ 1.2
격차	6.9	6.5	5.9	6.5	6.5	7.2	7.4	8.7	8.3	9.3	9.2	8.4	7.8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 관광산업 저조로 각지의 체감경기 하락**

- 『킨키』 『시코쿠』 『호쿠리쿠』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 『츄고쿠』가 개선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39개 도도부현이 악화, 9개 현(県)이 개선되었다. 엔저(円低)에 따른 사업단가 상승이 마이너스 요인이 된 한편 관광산업 저조는 각 지역의 체감경기를 하락시켰다.
- 『킨키』(42.6) …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지역 내 2부(府) 4현(県)이 4개월 만에 모두 하락하여 「나라(奈良)」는 5개월 연속 악화로 나타났다. 화학품 및 철강을 포함하는 『제조』가 4개월 만에 하락하였다. 관광버스 이용 저하 등 관광산업도 저조하였다.
- 『시코쿠』(40.2) …동 1.0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지역 내 4현(県) 중 3현이 악화되었다. 『소매』는 「정보가전은 엔저(円低)로 인한 가격급등 등으로 구매 보류가 일어나고 있다」 등 판매수량이 크게 떨어졌다.
- 『호쿠리쿠』(42.3) …동 0.1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지역 내 4현(県) 중 3현이 악화, 1현이 개선되었다. 「예산이 복구·부흥에 들어가 입찰건수가 적다」 등 재해관련 이외의 공공공사가 저조하였다. 또한 자동차 및 가전, 음식료품 등 『소매』의 판매가 부진하였다.

지역별 경기DI (2024년 5월)

